



## 에이즈 말기 환자의 증상과 돌봄의 실제

박 은 속 (세브란스병원 감염관리실)

### (1) 손 씻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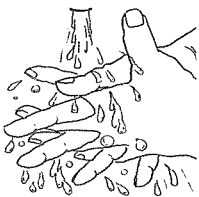
#### ① 손은 언제 씻을까?

- 화장실 다녀온 후
- 음식 준비하기 전, 환자의 식사 도와주기 전
- 환자의 개인위생을 도와준 후
- 환자 목욕 도와준 후
- 기침, 하품, 코를 만진 후
- 쓰레기 만진 후
- 음식을 먹기 전
- 병실을 떠나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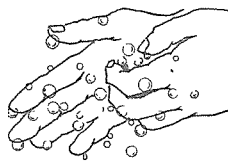
#### ② 어떻게 씻을까?

일반적으로 주름진 곳, 습하고 따뜻한 곳에서 미생물의 정착이 쉽게 이루어진다. 손가락 사이, 손톱 끝, 손금 부위 등이 이런 부분이다. 일반적인 비누와 물로 문지르면 쉽게 제거될 수 있으며 오염이 심하면 좀 더 오래 문지르도록 한다.

- 반지 등 손의 장신구는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신다.
- 손의 모든 표면(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끝 등)을 비누나 소독제로 잘 문지르면서 닦는다. 15초 이상 문지른다. 비누를 사용해야, 문질러야 균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명심하자.
- 흐르는 물에 비누가 없어질 때까지 잘 행군다.
- 종이타올로 손을 건조 시킨다.
- 싱크가 없는 경우는 물 없이 사용하는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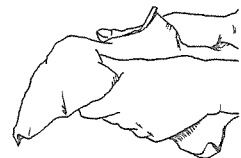
손가락 사이를 잘 문지른다



손금과 손끝을 잘 문지른다.



엄지손가락도 잘 문지른다



종이타올로 손을 건조시킨다

## (2) 장갑 및 보호장비의 착용

- ① 장갑 1)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배설물 등으로부터 간호제공자의 손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고, 2)간호제공자의 손에 상재하거나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미생물이 환자에게 옮겨갈 가능성을 줄여준다. 목적에 따라 멸균되었거나 멸균되지 않은 깨끗한 장갑, 비닐이나 라텍스 장갑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간호제공 시에는 깨끗한 비닐장갑을 사용하면 충분하다. 장갑을 끼는 것만큼 벗는 것이 중요한데, 사용 즉시 벗지 않을 때는 오히려 주변 환경이나 다른 환자에게 병원체를 직접 전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1회용 비닐장갑은 재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②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튀거나 었지러질 가능성이 많은 경우는 가운이나 마스크, 보안경등 필요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야 하지만 실제 보호자가 수행하는 일상적인 간호에는 이러한 보호 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흔하지 않다. 에이즈 환자가 기회감염으로 결핵을 앓는 경우가 흔하다. 결핵에 대한 치료가 완전히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 결핵에 대한전파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경우 환자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 (3) 환경관리

- ① 바닥, 벽, 탁자 등은 대부분 감염 전파원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병실의 청소에는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고 접촉이 많은 침상, 침대난간, 침상주변의 기구들은 바닥이나 벽보다는 좀 더 빈번하게 적절한 방법으로 청소하도록 한다. 병원 환경청소에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는 약한 수준의 소독제들로서 100배 희석한 락스제품이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환경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모든 액체 쓰레기는 화장실 변기에 버리도록 한다. 이때 벽이나 주위에 튀지 않도록 주의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정액, 질액, 유즙이 묻은 휴지나 상처를 치료한 드레싱 등은 세지 않는 비닐 등에 넣어서 꼭 묶도록 한다. 밖으로 세지 않도록 신문지 등을 넣어서 한번 더 싸 맨 후 의사나 간호사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한다.
- ③ 입원환자의 경우 오염된 세탁물에 의해 병원균이 전파될 위험률은 적지만 운반 도중 직원의 피부나, 의복, 주변환경(침대, 침대 난간, 침대 옆 물건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세탁물은 병실 내에서 분리수거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의복이나 린넨 등은 정해진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가정에서라면 분리하여 염소계 표백제를 첨가하여 세탁하면 된다.

#### (4)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될 경우

주사침 찔림은 의료인들이 흔히 경험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보호자나 간호제공자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환자의 체위변경이나 시트 정리 등 도움을 줄 때 혹시 사용한 바늘이나 날카로운 기구가 떨어져 있는지 주의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만약 찔렸거나 상처가 난 경우라면 간호사 사무실에 즉시 이야기 하도록 한다. 찔린 부위를 꼭 눌러 피를 짜내도록 하고 소독제로 닦아낸다.

환자의 혈액이나 정액, 질액, 유즙 등의 체액이 환자를 돌보는 사람의 눈이나 코, 입등의 점막이나 상처 있는 피부에 튀거나 묻었을 경우는 즉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닦아낸 후 의료진에게 이야기하여 조치를 받도록 한다.

#### (5) 간호제공자의 주의 점

##### ① 상처가 있으면 꼭 드레싱을 할 것

손을 베었거나 기타 상처가 돌보는 사람의 손이나 피부에 있으면 꼭 드레싱을 해서 상처를 덮어놓도록 한다. 또한 손에 열이 나면서 물집이 잡혔거나 염증이 있으면 환자를 돌보지 않도록 하나 꼭 필요한 경우는 반창고 등으로 밀폐시키도록 한다. 종기나 농가진, 대상포진 등이 생겼으면 환자와 함께 한 집에 있지 않는 것이 좋으며,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경우도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다.

##### ② 아픈 사람은 멀리 할 것

에이즈 환자에게는 감기도 위험하므로 누구든지 아픈 사람의 방문이나 환자를 돌보는 것은 제한하도록 한다. 그러나 돌볼 사람이 없을 경우는 환자 방에 들어가기 전에 얼굴에 잘 맞고 여과력이 좋은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 ③ 수두의 증상을 잘 살필 것

에이즈 환자에게 수두는 치명적이다. 수두환자와 같은 방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최근에 수두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최소한 3주정도 에이즈 환자를 방문하거나 간호하지 않도록 하며, 가까운 사람이 수두를 앓고 있는 사람이 환자를 간호해야 할 경우에는 환자 방에 들어갈 때마다 여과율이 높은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환자와 접촉 전 후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수두의 유행이 있는 시기에는 산책이나 외출을 하지 않도록 한다.

입가나 손에 단순포진이 있는 사람은 환자와 접촉을 피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상처를 완전히 덮도록 하고 손을 잘 씻도록 한다. 단순 포진바이러스는 에이즈 환자에게서 수두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연재됩니다.)